화순군, 2019년 하수도 분야 신규 사업 국비 232억 확보

도곡지구 · 월전지구 하수도 정비 추진 탄력

화순군이 '도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2019년 하수도 분야 신규 사업 2건의 사업비를 환경부로부터 331억(국비 232억)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공공하수 처리구역이나 하수관로 미정비 지역인 도곡지구는 도곡면 신성리 등 8개리에 사업비 277억(국비 194억)을 투입해 2022년까지 관로 28km를 매설할 계획이다. 면 소재지 중 유일하게 하수도가 정비되지 않은 월전지구는 도암면 원천리 등 3개리에 사업비 54억(국비 38억)을 투입해 처리장 1개소, 관로 5.4km 매설을 2021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화순군은 올해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등 4건의 신규 사업 국비를 확보하여 시설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국비확보 활동으로 2019년 2건의 신규 사업 국비를 추가 확보했다.

이로써 화순군에서 시행하는 하수도 사업비는 총 1,037억으로 하수관로 정비 3건 478억(국비 319, 지방비 159), 마을하수도 정비 5건 417억(국비 268, 지방비 149), 환경기초시설 2건 142억(국비 71, 지방비 71)에 이르며, 사업추진에 따른 공공수역 수질보존 및 일자리 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속적인 신규 사업 확정 및 국비 확보 디딤돌 마련을 위해 하수처리구역 확대와 처리장 개량을 반영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을 2015년 11부터 수립했다. 또 각종 기술진단 및 안전진단 용역을 적기 시행하여 관련 부처의 설득 자료를 충분히 확보, 국비확보 활동을 펼치는 등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전남도에 국비 신청 후 군수를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을 수시로 방문,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한 결과 계획된 예산의 감액 없는 확보와 신규사업 2건 331억을 추가 확보하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게 된 것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2019년 신규 사업 확정으로 늘어나는 하수도 처리구역 확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공수역 수질보전에 따른 청정화순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하수도 행정 선진화를 통한 살기 좋은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여수시, 광양만권 물 재이용 협약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6개 기관 · 5개 기업 동참

여수시가 섬진강 하천유지용수 부족 문제 극복을 위한 광양만권 물 재이용 활성화 협약에 동참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7일 전남녹색지원센터에서 여수시, 광양시, 영산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등 6개 기관과 광양만권 5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여자는 고재영 여수시부시장, 최종원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장충세 광양시 환경관리센터소장, 최등호 한국수자원공사 영산강·섬진강본부장, 오승민 ㈜LG화학 공장장 등이었다.

협약 내용을 보면 먼저 여수시와 광양시는 관할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방류수를 공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대책을 강구한다.

또한 물 사용량 10% 이상 절감 등 섬진강 하천 유지용수 부족 문제 해결에 노력하기로 했다.

기업들은 폐수 배출을 최소화하고 폐수를 자체적으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빗물 등 친환경 수자원 확보에 동참하기로 했다.

협약서에는 지자체와 기업이 주민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물 절약 홍보활동을 펼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유관기관, 기업과 섬진강 유량 부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며 "협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여수산단 공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일 5만톤의 하수처리수를 산단에 공급하는 '여수하수처리수 공업용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여수=송기홍 기자

무안군, '제1기 무안황토골정원사' 양성교육 수료식

무안군은 지난 15일 '2018년 제1기 무안황토골정원사 양성과정 수료식'을 갖고 정원사 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 하였다.

이번 교육은 지난 10월부터 8주 동안 매주 토요일 6시간씩 목포대학교 원예학과에서 이루어졌으며, 정원역사, 정원식물, 정원설계, 정원시공, 정원견학 등의 교육내용으로 운영되었다.

수료식은 정원교육 경과보고, 수료증 수여 및 기념촬영, 교육생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과정을 이수한 20명의 '무안황토골정원사'는 앞으로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을 통한 공동체 실현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첫 번째 사업으로 2019년 무안군에서 추진하는 '청춘공동체 정원조성사업'에 무안황토골정원사가 직접 참여하여 설계부터 조성 및 관리까지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 정원전문가와 함께 청춘공동체정원 조성을 위한 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군민들에게 정원, 꽃과 나무를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군민들 간 화합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 기자

영암호 철새도래지 AI 방역활동 총력

31사단 제독차량 1대 · 광역방제기 1대 · 군 소독차량 4대 동원

영암군은 17일부터 이틀에 걸쳐 31사단 제독차량 1대, 광역방제기 1대, 군 소독차량 4대를 동원해 삼호읍 산호리에서 미암면 호포리에 이르는 영암호 주변 20km 구간에 일제소독을 실시하였다. 영암호는 대표적인 철새도래지로 현재 가창오리 등 겨울철새 12만여 마리가 도래한 것으로 확인되어 방역부서와 군부대가 힘을 모아 방역활동에 나섰다.

지난 10월 경남 창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야생조류에서 30여 건 이상의 AI 항원이 검출되었으며 이달 초 강진 만덕간척지, 순천만 습지에서 연이어 저병원성 AI 바이러스가 확인되어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에 영암군은 철새로 인한 AI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미암면 호포리에 이동초소를 설치하여 출입차량을 통제해오고 있으며 주요 진출입로에 3회에 걸쳐 생석회 12톤을 살포하고 축협 공동방제단과 살수차량을 동원해 매일 위험지역에 대한 소독을 실시해왔다.

고병원성 AI는 러시아 등지에서 남하하는 겨울철새에 의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철새도래지를 거쳐 사육농장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따라서 철새도래지 선제적 방역이 겨울철 AI 발생 억제에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영암군은 AI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체 오리 사육규모의 40%정도인 28농가 64만수에 대해 휴지기를 운영 중이며 3회에 걸쳐 생석회 300톤을 지원해 농장입구 및 둘레에 살포하도록 하여 농장으로 AI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중 전체 가금농장에 면역증강제와 소독약품, 생석회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AI 예방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담양군,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로 건강 위험요인 감소

6개월간 서비스 대상자 66% '건강행태 개선'

담양군 보건소가 중점 추진 중인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군민의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7월 서비스시작으로 12월까지 6개월간 총 6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헬스케어를 진행했으며 중간 평가를 실시한 결과 58.9%가 건강 위험요인이 한 개 이상 감소했으며, 66%는 건강행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건강검진 결과 만성질환의 전 단계인 혈압, 공복혈당, 복부비만, 중성지방, 콜레스테롤(HDL) 등 5개 건강 위험요인을 하나 이상 갖고 있으며,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건강취약계층에게 스마트폰 앱으로 건강생활습관 개선 및 꾸준한 관리, 각종 건강정보를 지원해주는 신개념 의료서비스이다.

또한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지도사, 코디네이터로 구성된 전문인력이 참여해 대상자에게 운동, 영양, 건강 등 관련 분야 상담을 진행하고, 대상자를 기본관리·혈압관리·혈당관리·복합관리로 나눠 맞춤형 건강생활습관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 보건소는 내년에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용자를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김순복 보건소장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가 군민의 건강 생활습관 관리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해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